

다산포럼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제나라 관중(管仲)과 정나라 자산(子產)은 공자가 높이 인정한 재상들이다. 관중의 경우 그 지대한 공헌과 함께 단점도 언급했지만, 자산에 대해서는 찬사로 일관했다. 외교 수사에 능하고 자비로운 재상이었을 뿐 아니라 공손함과 성실함, 다정함과 의로움을 겸비한 군자라는 논평이 '논어'에 실려있고, '춘추좌씨전'에도 공자가 자산의 구체적인 언행을 듣고 찬탄하였다는 대목이 여러 번 보인다. 자산의 부고에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옛사람의 은혜로움을 후세에 남겨준 사람이다." 제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든 관중도 대단하지만,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정나라를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소국으로 만든 자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도 강성한 귀족들에 둘러싸인 정치 활동에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산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춘추좌씨전에 의하면 너그러운과 엄격함을 조화롭게 운용하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했다는 점, 특권층의 일탈에 단

공자가 인정한 재상, 정자산을 떠올리며

호하게 대처하고 백성들의 고통은 자애롭게 돌보았다는 점, 비판 여론을 막지 않고 개선의 근거로 삼았으며 실력과 명분을 기반으로 강대국에 당당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취했다는 점 등을 그 주된 이유로 들 수 있다.

집권 초기, 자산은 명문대가인 백석(伯石)에게 일을 시키면서 성음을 주었다.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자 자산은 국가 안정을 위해 우선 힘 있는 이들의 욕망을 적절히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답한다. 백석은 도리어 두려워하며 반납하려 했으나 자산은 다시 그를 고관의 지위로 올려준다. 자산 역시 백석을 인정하기는 커녕 그 인간성을 혐오했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이다. 자산은 때때 따라 정말 필요하면 명분보다 실리를 취할 줄 알았던 인물이다.

자피(子皮)가 친애하는 사람을 읍제로 삼고자 하자 자산은 연소함을 이유로 반대했다. 일을 하면서 배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좋게 말하는 자피에게 자산은 일갈한다. "그대의 사랑은 사람을 다치게 할 뿐이니 누가 그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배운 뒤에 다스리는 것이지 다스림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값비싼 비단을 마름질 연습용으로 쓰단 말입니까?"

지방관 수행을 비단 마름질에 비유하는 관용적 표현을 낳은 일화다. 이 말을 들은 자피가 감탄하면서 나랏 일은 물론 집안일까지도 앞으로 자산의 명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자산은 다시 말한다. "각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은 것은 각 사람의 얼굴이 같지 않은 것과 같습니

다. 어찌 그대의 얼굴이 제 얼굴과 같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사람 마음 역시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자산은 잘 알았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치를 펼친 것이야말로 자산의 자산다운 점이였다. 정해진 원칙만 따르기는 오히려 쉽지만 자산은 끊임없는 탐색과 균형 잡기를 통해 때에 맞는 답을 찾아갔다.

자산이 섬기던 정나라 군주 공간이 죽었다. 장례를 위해 길을 내야 하는데 그 중간에 유씨 집안의 사당이 있었다. 그 건물을 헐면 오전에 하관할 수 있고 아니면 정오가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 여러 제후국에서 문상 온 빈객들을 오래 기다려도 할 수 없으니 할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산은 지체되더라도 헐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했다. 군주의 장례를 위해 백성의 손해는 무시되어도 그만이었지만 남을 훼손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은 예(禮)가 아님을 알았던 것이다. 때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근간에는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과 나라의 정치를 대신 맡아줄 이들을 선발하는 일이 다양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 2500여 년 전의 정나라는 너무 멀고 오래된 이야기지만 고군분투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힘센 자산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울림을 준다. 이런 정치인을 오늘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선의 계절, 오늘도 정치만 이야기를 잔뜩 썼다가 다 지우고 자산의 이야기만으로 지면 대부분을 채운 뜻도, 그런 소망 때문이다.

청춘 특특

목표를 위한 방향성 찾기



박희은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3년

어느 날 스마트폰 갤러리를 둘러보며 문득 고3 무렵의 글을 한참 동안 읽어봤다. 그 글은 심화 국어수업 시간 때 작성한 글이었다. 선생님께서는 매 수업 시간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그에 부합한 일기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셨다. 일기를 작성한 후 선생님께서 수합하시고 코멘트까지 달아주시던 활동의 과정은 끝이 났다. 그 당시 선명히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었다.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는 주제였다. 고3인 학생 신분에서 주위 친구들을 보면서 지향하는 목표가 뚜렷한 친구, 모든 과목에서 월등한 성적을 받은 친구 등 그들의 특성을 나열할 수는 없었지만 제일 부러운 사람을 '내 주위의 친구들'이라 작성했다.

확실히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과연 내가 하는 과정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현될지를 막연하게 걱정하며 살았다. 고민과 걱정 근심이 많은 내게 대학교 학과를 결정하는 일은 큰 태산과도 같았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답글을 달아주셨다.

"걱정은 걱정일 뿐 없앨 수 없으면서도 소용없는 것도 사실이고... 내 미래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 많으니, 앞으로의 시간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려봐"라고 남겨주셨다.

고3이었던 나는 하루하루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계획한 일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신을 늘 책망했다. "왜 오늘 계획한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거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말이다. 또한 내가 잘하는 일에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대해 내게 "잘했다"며 자신을 사랑해 주고 칭찬하기는커녕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버리기 일쑤였다. 왜냐하면 "남들도 다 하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은 많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치 나를 울타리 안에 가두고 제자리를 빙빙 돌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고3일 때와 현재 대학 생활에서의 차이를 느꼈다. 다채롭고 뜻깊은 경험을 쌓고 대인관계를 통해 생각의 전환이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 따라서 내 마음에 증식된 걱정이 차츰차츰 사라졌다. 지금 활동하는 학보사 기자 일과 학과 전공 공부 등 대학 생활을 즐겁고 알차게 보내며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만큼 열심히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크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목표와 도전은 꿈을 향해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일, 그중에 내가 정녕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해준

다.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가치와 결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소한 경험에도 행복을 느끼고 큰 목표를 이룩했거나 성취감을 이뤄냈을 때처럼 말이다. 사람마다 경험의 크기를 모두 아우를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고 배우면서 한 단계씩 나아가며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험도 하나의 지적 성장이자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력과 소통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목표에 달성하듯 말이다.

나는 내 가치를 향후 내 꿈에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고3 때는 이념 저항 하고 싶은 진로만을 꿈꾸거나 꼭 이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들었다. 지금, 대학과 사회에 내디뎌보니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추구한 길이 아니더라도 많은 다른 경험들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목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괜찮다. 노트를 꺼내 들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보자.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이다. 산책, 운동, 취미 생활 등 내 삶이라는 책에 글을 남겨 보는 것은 어떨까? 또한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내겐 하나의 공부라 되지 않을까?

지금도 나는 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배워나가는 중이다 내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게 초점을 두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 큰 꿈을 이룩하길 바란다.

社說

정치 무관심 청년층 투표장 이끌 정책 정당은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어 역대 총선 최고를 기록했지만 정작 청년층의 투표 참여 의지는 약하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데 무관심을 초래한 원인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상호 비방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한 '공약' 등 복합적이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8~29세 이하 청년층이 50.3%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4년 전 21대 총선에 앞서 실시한 같은 조사(60.4%)에 비해 10.1%포인트나 낮아져 이번 총선의 높은 사전투표율과 반대 성향을 보였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더니 정치에 무관심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 정치권이 제공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공약이 없는 데다 정쟁과 저질 비방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한 탓이 컸

다. 정오현(20·조선대)씨와 임가은(21·전남대)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당을 보며 피로도를 느끼고, 나 하나 투표 하더라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무력감마저 든다고 했다. 표지훈(23·중앙대)씨도 되풀이되는 정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오수진(23·전남대)씨는 "청년을 위한 정치"가 없다면 청년의 입장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고 이주호(19·서울대)군은 모 정당의 '월 20만원 기숙사 5만호 공급' 같은 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정치 무관심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정치권에 있는 만큼 해법도 결국 정치권이 내놓아야 한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해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버리고 청년층을 투표장으로 이끌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기후·환경 변화로 시름하는 농가 지원책 절실

기후·환경 변화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되풀이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화기 냉해에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꽃병이 격감해 양분과 과수 농가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도 4월 기준 지역 별꽃 농가 168곳 가운데 156곳에서 꽃병 개체수가 격감했다. 전남에서도 꽃병 농가 94%를 웃도는 2042곳에서 같은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꽃병 실종' 현상은 응애(꽃병 전염병을 일으키는 해충), 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거론되지만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꽃병 실종은 농가에도 도미노 피해를 낳고 있다. 전남 농민들은 배꽃 수분(受粉, 종자식물에서 수술의 화분을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꽃병을 매개체로 자연수분이 불가능해지면 농민들이 벌통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만해도 한 통에 15만원 이던 벌통은 올해 40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일부 과수 농민들은 한 톤이라도 아끼기 위해 수분장비를 사들여 인공수분을 하고 있는데 장비 가격도 25%가량 올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영암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황인춘(85)씨는 "올해도 잦은 비로 수분이 안되고 꽃병도 줄어들어 농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기후, 환경 변화가 농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일상이 되니 오래다. 정부와 농정 당국은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자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농가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 적절한 지원대책을 서두르는 한편,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보급도 시급하다. 농업이 타격을 입으면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천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쥐는 쥐를 뽑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를 쥐를 잡아먹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22대 총선을 앞둔 서울 지역 유세 현장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생쥐나라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도해주겠다'라는 생각에 고양이를 뽑았는데 검은 고양이가 먼저 뽑혔을 땐 잡아 먹어 버렸다"며 울바른 선택을 호소했다.

'생쥐나라'(mouseland)는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1962년 캐나다 의회에 서한 연설에 나온다. 서민들을 생쥐에 반대 자

친다며 일정 속도 이하로 다니는 법을 만들었을 뿐이다.

생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졌다. 호되게 당한 생쥐들은 다음 선거에서 흰 고양이를 뽑았다. 이번엔 네모난 쥐구멍을 만드는 법이 통과됐다. 고양이는 두 발을 모두 넣을 수 있게 됐고 생쥐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후에도 생쥐들은 선택을 번갈아 가며 고양이 정권을 선택했다. 얼룩덜룩한 짐작이 고양이, 색깔이 반반씩 섞인 영정 형태의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기도 했다. 나이질

없다. 고양이가 쥐 생각 할 리가 없지 않은 것이다.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의 투표율이 41.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불쌍한 생쥐'가 되지 않겠다는 유권자들의 다짐일테다. 유권자의 한 표가 좋은 정치인을 뽑는 데 쓰여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내 한 표가 당선자를 뽑지 않았다더라도 '죽은 표'가 아니라 당선자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는다. 대한민국호의 경로를 결정할 민심의 뜨거운 흐름을 목도하는 날, 이제 하루

도둑놈 /김지을 정치부 부장 dok2000@

기고

해외여행은 문화 강좌 관심부터



김재현 해외 전문 여행가

'여행은 아는만큼 보인다'. 이 문구는 해외여행 할 때 특히 많이 듣는 말이다. 준비없이 무작정 따라 나선 해외여행은 기대보다 가성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전에 문화 등을 충분히 점검한 경우는 그만큼 가성비가 높은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2230만 명에 달했다. 한국 국민이 51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44%가 해외 관광에 나선 셈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혔던 시절을 생각하면 거의 1년만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당달아 해외 여행정보의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는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몸으로 겪는 경험담을 풀어 놓는 것들이 많다. 집안에서나 핸드폰으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쉽게 여행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문화, 음악, 클래식, 역사 등 강좌 개설도 늘고 있다. 강사는 대부분 자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자기의 관심분야와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시간만 허락되면 어디서든 한번 배워보겠다는 관심자들이 있다는 것이 점점을 이뤄 많은 강좌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도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소재한 광주재능기부센터 용봉센터에서 '세계사 산책'이라는 주제로 유럽지역 국가들의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유럽여행이고, 여행 방식으로 유럽 문화를 알 수 있다면 쉬운 여행, 가성비 높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관심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무엇인 이 강좌는 해외 여행자들에게 방문국의 정보, 특히 문화와 역사를 여행지에 따라 쉽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국가를 특정해 그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음악과 미술 그리고 맛집이 어우러진 여행 코스를 설계해 주고 그 코스에 따라 여행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유럽 세계사 산책 1차 강좌로 10개 국가를 랜선 여행으로 다녀왔다. 프랑스(나폴레옹 스스로 황제관을 쓰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시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오스트리아(천재음악가들이 빈에 몰리다), 오스트리아(모차르트, 35년간 지상에 머물러준 음악천사), 폴란드(쇼팽, 나의 심장을 고국에), 네덜란드(고흐, 풍차의 나라엔 가뭄이) 등의 강의를 마쳤다. 호응이 좋아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과 전북에서도 찾아왔다.

1차 강의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유럽 세계사 2차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인(해가 지지 않는 해양제국), 3월에는 포르투갈(애잔한 파두와

버스킹의 나라)을 강의했다. 이후 영국(세계 최강은 여성의 힘), 노르웨이(피오르드와 그리그의 음악세계), 독일(천재들의 나라? 바보들의 나라?), 체코(프라하와 합스부르크가의 애증), 헝가리(바다가 없는 나라, 리스트의 고향), 크로아티아(지상 천국의 나라와 전쟁), 오스트리아(빈 위전과 클래식), 스위스(유럽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강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진행하고 문화 해설은 물론, 코스와 연결된 음악이나 미술도 배울 수 없는 테마이다. 커피 한잔 마시거나, 상호간 인사도 하고, 질문도 하는 시간도 갖는다. 강의가 끝나면 아쉬움에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참가자는 마침 여행 준비중인데, 사전에 안내를 받을 셈치고 강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도 많다.

역사 강좌를 듣는 것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지만 색다른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언제든 질문할 수 있고 동호인들과 서로 격에 맞는 주제로 대화할 수도 있다. 또 유럽의 나라들을 아직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도 강의를 통해 충분히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강좌는 여행을 다녀온 사람에게는 추억을 되살려 주고 아직 못 가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